

# 파아밍턴 플랜 (Farmington Plan) 小考

劉 衡 勝

(大田大學校圖書館長)

## 연 령

제2차 세계 대전과 종전 후의 혼란한 사회 형편은 유럽을 위시한 기타 국가들의 도서가 미국내에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막아서 미국 도서관계에 커다란 「갭」을 이루어 놓았다. 학계 및 정부의 유럽 도서와 학술 잡지에 대한 필요성의 급격한 증가는 전전(戰前)의 부적당한 유럽 도서의 구입 방법을 지양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1942년 10월 미국 코네티컷 주의 파아밍턴(Farmington)에서 미국 의회 도서관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한 토의가 시작되었다.

1942년부터 1947년까지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고 전후 미국 의회 도서관이 대전 중 취득치 못한 유럽 자료를 얻기 위하여 여러 도서관들이 협력했던 응급 계획의 성공으로 미국내 도서관들의 거국적 협조의 실행 가능성이 일어났다. 이 성공을 계기로 1947년 3월 특별 회기 중에 ARL은 이 파아밍턴 플랜을 발족시켰다.

이 플랜을 관리하여 온 ARL은 미국내의 가장 저명한 연구 도서관들의 자발적인 조직체이며 이들의 대부분이 대학 도서관이지만 3개의 중요 연방 도서관, 2개의 큰 공공 도서관 몇몇 개의 특수 도서관들이 포함되어 70여개의 도서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미 공법 480호가 발효하기 전까지는 카네기 재단과 Council on Library Resources에서 ARL에 보조하는 기금 이외에는 이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전부 참가 기관에서 부담하였었다.

## 파아밍턴 플랜의 내용

이 플랜은 국내의 전 연구 자원의 증대를 목적으로 70여개의 미국 도서관들이 특수한 수집 임무를 수락한 자발적 협정이다. 만약 이 플랜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또 세계 각국으로 번져 나가 모든 출판물에 적용이 된다면 이들은 곧 National Union Catalog에 기재되고 도서관 간의 상호 대출이나 사진 복사에 의하여 미국의 학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신간 외국 서적이든 최소한 한 벌은 미국내의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내의 모든 분야의 학자들에게는 매우 신속하고 또 경제적으로 자기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 1. 범 위

영국의 출판물과 캐나다에서 출판되는 영문 자료들은 미국 도서관들에 의하여 매우 잘 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 플랜에 아직까지 들어 있지 않은 나라들의 자료는 잘 수입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나라들을 포함할 계획으로 있다. 정부 간행물들은 그 수입에 있어 여러 가지 특수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또한 협회에서 발행된 논문이나 총서들은 이미 대부분이 상호 교환 협정에 의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랜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또한 이 플랜 발효 이전에 창간된 모든 총서들도 제외되어 있다. 서적상들이나 이 플랜의 대리점들로 하여금 귀중본이나 비매품 도서들을 공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을 완전히 공급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러한 비매품 도서들이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그 수입이 매우 어려운 관계로 이 플랜에서는 특별한 배려로 될 수 있는대로 완전히 수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플랜은 출판된 도서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폼의 형태로 된 자료도 수입을 하고 있다.

## 2. 대리점의 임무

보통으로 이 플랜에 참여한 도서관들은 자기 한 국가씩을 분담하여 한 도서관에서 한 국가의 출판물을 책임 구입하며 또 독자적인 조정도 한다. 이 도서관들은 자기가 맡은 대리점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전문 사서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이 플랜에 맞는 도서들을 선택하고 분류하여 그 목록을 신속히 계약된 도서관으로 보낸다. 계산서, 서신 및 소포는 "Farmington Plan"이라고 표지되어야 하며 모든 계산서의 사본은 파아밍턴 계획 사무국에 정기적으로 보내야 된다.

또한 모든 신간 정기 간행물의 견본도 공급하여야 한다. 할인과 우송료는 각 대리점과 파아밍턴 플랜 위원회 간의 협정에 의해 관리되며 출판과 매매 협정은 나라에 따라 상당히 변동되므로 계약 조건이 일정치

않다. 이 대리점들에게 이 계약 조건 이외의 출판물에 대한 정보의 제공도 요구되며 이러한 자료들은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특히 이 플랜의 위원회는 거래상과 의 교섭에서 할인 보다는 봉사를 강조해 오고 있다.

### 3. 회원 도서관의 임무

회원 도서관들은 계산서가 도착되면 대리점의 지시에 따라 즉각 도서의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수입된 도서의 기본 목록 카이드는 도서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종합 목록을 위하여 미 의회 도서관으로 보내야 한다. 신간 정기 간행물의 견본을 받으면 즉시 이의 구독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들은 이 플랜에 의해서 받은 모든 자료들은 상호 대출 제도나 사진 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운 영

ARL의 회원들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이다. 그들은 미국내의 가장 큰 대학 도서관들과 의회 도서관, 뉴욕 시립 도서관, 존 크리타 도서관과 같은 주요 도서관들이 포함되나 ARL의 건 회원이 이 플랜에 참여하지는 않으며 몇몇 비 회원들도 이 플랜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상의 모든 문제점은 정기적으로 1년에 2 회씩 소집되는 협회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ARL의 파아밍턴 플랜 위원회는 계획의 발전과 실행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진다. 이 위원회는 아프리카, 극동, 라틴 아메리카, 중동, 슬라브, 남아시아와 서부 유럽 자료에 관한 특별 위원회의 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특별 위원회는 그들 분야의 학술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일한다. 또한 재정 사무를 취급하며 통계를 작성하고 회원 도서관과 대리점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중재 조정하는 파아밍턴 플랜 사무국이 있다.

### 맺는 말

오늘 날 우리 나라의 학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며 그들 연구에 지장을 주고 있는 요소는 자료의 부족인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외국에서 출판되는 자료를 잘 알 수 없다. 즉, 각 도서관에 서지적 자료(Bibliographical Tool)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완전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구입의 난점을 들 수 있겠다. 비록 자기가 원하는 자료가 출판되었다 하더라도 불화(弗貨)의 개인적 사용 불능과 또 서적상들을 통하여 수입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 막대한 경비와 시간을 낭비하고도 꼭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며 후진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우리들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조건들을 극복하

기 위하여서는 우리들도 미국의 파아밍턴 플랜과 같은 움직임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한다. 도서관 상호간의 유대를 더욱 굳히며 서지적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며 국가적인 견지에서서의 장서 구성을 연구해 봄직 하다. 만약 서울에 있는 4개 대학교의 도서관 학과에서 이러한 플랜을 세워 긴밀한 협조 하에 장서를 구성해 나간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종류의 도서관학 자료들이 최대한도로 중복을 피하여 우리 나라에 들어 올 수 있게 될 것이며 이것은 도서관학 학도나 학자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따르겠으나 적은 테두리 안에서 소규모로 시작해 나간다면 점차 대규모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하여 학자들의 연구활동에 큰 공헌을 할 수 있게 될 때 학계나 사회에서 도서관이나 도서관인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리라 믿는다.

앞으로 우리 도서관인들의 시간을 내적 정리 작업 보다는 외적인 대공중 봉사에 많이 할애할 수 있으면 한다.

참고 봉사는 물론이려니와 각 분야의 서지적 자료의 정리 및 교환을 통하여 명실공히 인포오메이션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참고 자료>

- Vesper, Robert. The Farmington Plan Survey: A Summary of the Separate Studies of 1957-1961.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Science, 1965.
- Williams, Edwin E. Farmington Plan Handbook. Rev. to 1961 and abridged ed.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1961.

### (20面에서 繼續)

회현상이 있다. 월남전쟁 반대 데모는 각지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고 흑백 인종 분규는 좀처럼 호전될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 잠재적 실업자문제 미국적 빈곤 문제 등이 미국의 어두운 면으로 언제나 클로즈업되고 있다. 한편 도서관계를 보더라도 지나친 기술 본위 즉 프랙티컬한 면만 두드러지고 문헌학적인 방면의 빈곤, 그리고 사서들의 대우문제 사서의 직업 수준의 저하 또 도서관 학교에서 우수한 교수의 이탈 여학생들의 지나친 수적 팽창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허다하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위대한 나라요 거대한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당분간은 미국을 따를 나라가 없고 도서관이나 도서관학에 있어서 따라갈 나라가 아직은 있어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구라파로 떠나야 한다.